동국대 국제불교문화학과
美 불교 탐방기

미국 불교 역동성을 보고 듣고 느끼다

드디어 출발이다!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탔다. 우여곡절도 많고 수많은 의견 토의와 조사와 이메일이 오간 끝에 연수 일정을 완성한지도 한 달여. 방학 토익집중 특강으로 방학을 하면 제대로 센터별 질문지를 작성해 보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결국 각자 맡은 센터를 간단히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로 끝냈다. 기대 반 두려움 반. 어쨌든 지금은 비행기 안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국제불교문화사업학 전공에 입학해 3학기를 수학하고 있는 우리들은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의 미국 동부 불교수행센터 탐방 연수를 떠났다.

우리들은 조계종 교육원 전액장학금으로 대학원 석사과정과 3주간의 미국 연수를 하게 된 행운아들이다. 3주간의 연수는 혜택인 동시에 수행 과제이기도 했다. 지난 한 학기 내내 연수 준비를 위해 방문할 센터 선정과 그 곳과 관련된 조사연구가 병행되었다.

또한 "연수 준비는 여행사가 아닌 스스로 진행하라"는 교육원의 방침으로 우리 스님들이 나서서 인터넷 조사와 주변 인맥을 통한 정보 수집 노력으로 여행 일정(itinerary)이 완성됐다. 덕분에 각자 3,4곳씩 맡은 선센터 방문지에 대해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어 이메일 작성 경험과 정보를 많이 쌓을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

한 학기동안 미국 불교를 연구조사하고 발표하면서 미국 불교에 대해 가진 두 가지 편견이 있었다.

첫째는 짧은 불교 역사 탓에 불교에 대한 잘못된 환상(불교를 신비주의로 인식)이 많고 불교에 대한 지식이나 수행의 깊이가 얕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오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불교와는 달리 미국불교는 1893년 시카고 세계종교회의를 통해서 처음 대중적으로 불교를 접한 이래로 1970년대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불교 수행을 하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로서 명상이나 불교 수행 또한 상업화되고 세속화돼있다는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인 편견이었다. 이러한 미국불교에 대한 편견은 3주간의 짧지만 인상적인 만남들로 인해 다소간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 미국불교 편견 타파 과정을 소개한다.

우리가 방문한 수행센터는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미국 현지의 동포 대상의 한국 사찰들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현지인에 의한 미국화된 선센터들이다.

미국은 다양한 이민 사회로 이루어져 있어서 미국불교 또한 크게 두 부류, 즉 이민 온 동양 불자들에 의해 들어온 그들만의 고유한 사찰 불교인 에스닉(ethnic) 불교와 미국 백인 중산층 지식인들 중심의 수행 위주의 불교(개종불교)로 나누기도 한다.

한국 사찰은 전자에 속하며 한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한국식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포들 외에 현지인에 대한 포교에는 미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제일 큰 제약은 언어적인 제약이며 둘째는 인력 부족이다. 미국 내의 한국 사찰들은 거의 개인적으로 혼자 도미해서 어렵게 일구어진 개인 도량으로서 미국 현지 한인불자들만의 보시로 근근이 지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중 뉴욕 불광선원은 주지 휘광 스님의 적극적인 장학 노력으로 3명의 젊은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어린이 법회와 청소년 법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중국계 사찰 장엄사에서 진행된 비구 보디 스님의 니까야 강의 전 참가 대중이 좌선을 하고 있다.


연수 참가 스님들이 브룩클린 젠센터(Brooklyn Zencenter)의 도서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교포 사찰 · 미국식 선센터 등
美동부 수행센터 17곳 탐방

연수 과정 스스로 준비하며
영어 실무 능력 자연 배양돼

현지 프로그램들 체험해보니
눈높이 지도 방법 인상 깊어

불광선원의 성공적인 포교의 원인은 어린이 법회의 성공과 지속에 있다. "어린이법회가 튼튼해야 그들이 자라서 청소년 법회를 이루고 나아가서 청년회 및 미래의 든든한 불자들의 모임이 된다"는 주지 스님의 지론이 인상적이다.

원각사는 방문 당시 대작 불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지 지광 스님은 우리 학인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안내해줬다.

"이제 우리도 미국 동부에 한국 전통 사찰 양식의 도량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교포 불자들에게도 큰 긍지가 되고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도 무언의 공헌을 할 수 있다"라는 스님의 말씀도 인상적이었다.

사실 근처의 중국계 대형 사찰인 장엄사와 티베트 전통 사원을 방문해보니 미국 현지인들이 관광차 방문하면서 중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상황을 목도했던 터라 주지 스님의 설명이 더욱 와 닿았다.

선련사는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삼우 스님의 자혜불교회 소속 사찰이다. 삼우 스님은 1967년 도미한 이래 지금까지 현지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영어법회를 해오고 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맞게 수행법을 자세하고도 고구정녕히 지도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스님이 지금까지 꾸준히 포교활동을 펴나가는 핵심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인이 많은 맨해튼답게 수요일 저녁 7시 참선법회와 일요법회가 정기적으로 있고 불교교리 교실도 열고 있다. 운영은 미국식 불교센터처럼 여기도 멤버십 제도로 운영되며 법회 시 '권장 기부금(recommended donation)'도 받는다. 미국 불교는 아직 보시의 개념이 수행의 일부로서의 보시바라밀이나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가 확립되진 않아보였다.

이제 뉴욕 일원에서 만난 현지화된 미국불교를 만나보자. 먼저 매사츄세츠 바르에 위치한 IMS(Insight Meditation Society)에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수행프로그램(retreat)을 함께했다. IMS는 미국 내에서도 오래되고 큰 규모의 잘 알려진 수행센터이다. 역시 명성답게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진의 꼼꼼하고 정확한 안내와 배려가 돋보였다. 인터넷으로 접수 후 이메일로 접수 상황과 준비물, 지켜할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참가 전후로 재확인 감사메일도 왔다.

숙소와 음식도 무척 만족스러웠다. 모든 것이 수행에 가장 도움될 수 있도록 검소하지만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청소와 음식은 수련생의 운력(job duty)에 의해 수련 기간 중 따로 아침 운력 시간에 행해졌다. 필자는 점심공양 후의 식탁 닦기 및 정리의 소임을 운력으로 맡았는데 후원으로 가보니 각각의 할 일에 대해 상당히 꼼꼼하고 세부적인 항목으로 적혀진 매뉴얼 파일을 내밀어서 '역시 미국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UN종교NGO에서 활동한 이오은 원불교 교무를 만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4박5일의 수행 기간 중에는 철저한 묵언이 이뤄졌고, 채식 식단의 풍부하고 다양한 음식이 제공됐다.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날에 식단에 나온 채식의 레시피를 공개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채식 레시피 개발과 공유로 육식 위주의 서구 식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채식을 수용하려는 노력으로 느껴졌다.

수행에서 대해서도 3명의 수행지도 재가 법사가 서로 토의하고 협력하면서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 적절히 배분해 지도하는 것이 무척 인상적으로 보였다.

각각의 수행시간 전에 간단한 설명이 이뤄지고 수행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항상 있는 것도 인상 깊었다. 묻는 질문도 일상적이며 편안했고, 재가 법사도 편안하고 일상적인 말로 답을 줬다. 전문적인 불교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 대화로서 수행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선적인 대화 아니겠는가. 선이라는 것이 일상화된 불교수행이라고 본다면 말이다. '일체가 화두'이며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수행이며 '평상심이 도'라고 했으므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다시 선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 선수행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와 공감하는 불교가 되려면 이런 선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

거의 200명에 가까운 참가자들 중 유럽계 미국 중산층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 얼마나 진지하게 수행하고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는지 "미국불교는 가벼울 것"이라는 편견이 사라졌다. 3년째 매번 참여한 한 중년 부인은 수행센터에 오기 위해 3일 동안 차를 몰고 왔다고 했다. 그녀의 말에서 현지 미국불자들의 수행 열의를 실감할 수 있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틱낫한 스님의 블루클리프 젠센터에서 교육자를 위한 수행 프로그램 중 2박3일만 참석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라는 표어 아래 각처의 선생님들을 모아 일상 수행법을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참으로 공감이 갔다. 한명의 좋은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프로그램은 심신을 이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땅과 자연의 힘을 느끼고 함께 호흡하는 것 등으로 진행됐다. 중간 중간 운력과 마음나누기 시간이 있었다. 여기서는 공양시간 중에만 묵언이었으나 소란스런 대화나 잡담은 없었다. 수행 중엔 자연스레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는 것 같다.

또한, 특이할 만한 것은 공양시간 중간에 종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모든 동작을 멈추고 자기를 살피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틱낫한 스님의 수행센터들에서는 항상 하는 것이라는데 순간순간 자기를 살피는 것을 놓칠 때 다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됐다. 또, 처음 수행하는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서도 마음을 살피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이점이 보였다. 그러나 자칫 형식적이고 부자연스런 멈춤으로 보이기도 했다.

3주간 총 17군데의 수행센터를 둘러보았다. 지면상 그 중 일부만 쓰는 것이 아쉽다. 숭산 스님의 관음선종 본사인 프로비던스 젠센터의 미국인에 의한 우리말 예불도 감동적이었고 3주간의 하안거 결제에 20여명이 넘는 재가불자들이 단체생활하며 우리나라 선방식으로 열렬히 정진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미국 불교의 진지함을 느꼈다.

또, 샴발라 센터와 달마펑크, 뉴욕시내의 여러 소규모 수행모임들도 장소를 공유하면서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하는 열기는 오히려 뜨거웠다. 그들은 생활 속의 문제를 진지하게 불교수행을 통해 풀고 있었다. UN 종교모임에서 활동하는 원불교 교무님들과의 UN 방문도, 원달마센터 교무님의 친절한 안내,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의 멋진 대웅전 불사 이야기와 대관음사 주지 청호스님의 프레젠테이션도 기억에 남는다.

뉴욕 거리의 현지인들이 우리에게 합장 인사를 하는 생소한 경험도 이색적이었다. 앞서 미국불교를 다진 많은 선지식들의 성취와 공헌, 부처님의 음덕 덕분이 아닌가! 또한, 3주간의 연수 일정에도 많은 사람들의 공덕이 녹아 있다. 도와주신 모든 이들께 감사드리며, 일체중생에게 회향한다.


고경 스님

실상예불선으로...
불자 여러분 이땅의 아픔과 갈등의 치유를 발원하옵니다.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部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然
(생야일편부운기) (사야일편부운멸) (부운자채본무실) (생사거래역여연)

삶이란 한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오. 죽음이란 한조각 구름이 없어짐이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것 죽고 살고 오고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출처: 서산대사 해탈의 시





영가(정신착란증)에 시달리며 고생하시는 분
사람이면서 사람 행동을 못하시는 분은
실상예불선을 받들어 수지 독송 하시며
부정을 긍정으로 불안한 마음을...

❶ 관찰한다
❷ 영적인 본질을 보는 것
❸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신다.
❹ 계속되면 스님을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 총무 010-4566-4504

(社) 護國佛教曹溪宗 총무원장 유심성도 jogyejong.kr

• 총무원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1번길 16 부산역 앞 관음정사
전화 051)468-5657 | 팩스 051)442-5659 | 모바일홈페이지 http://jogyejong.kr
부설단체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 시신 및 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 본 디스크의 내용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051)442-5658]

감 독 : 관음 박몬비 | 조감독 : 무념 도갑원, 청곡 강모종 | 사진촬영 : 보교기획
제 작 : (주)예인미디어 | 녹 음 : 그냥해 STUDIO
기 획 : 유심스님 | 요 령 : 봉덕스님 | 목 탁 : 혜명스님 | 염불선,징 : 유심스님

판매처 : 부산불교전시관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330-152번지
☎ 051)644-8092